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 프레임 · 구약성경에 대한 사도들의 견해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제20장(본문 끝에 '제21장'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20장으로 보임), 대략 213–222쪽

###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사도들의 구약관이 예수님의 구약관과 같다는 데서 출발한다. 먼저 사도들이 구약을 부르는 이름과 인용하는 방식을 살핀다. “성경이 이르되”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서로 바꿔 쓸 만큼, 사도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는 차이가 없었다. 이어 야고보와 바울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 순종해야 할 말씀이며, 후대 신자를 위해 일부러 기록된 말씀임을 보인다. 그다음 신약의 두 대표 구절인 디모데후서 3:15-17과 베드로후서 1:19-21을 나란히 읽는다. 두 사도 모두 죽음을 앞두고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성경을 의지하라”는 같은 답을 남겼다는 것이다. 끝으로 프레임은 이 구절들을 후대 위작으로 보는 자유주의 주장을 반박한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기록된 문서로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성경 전체 주제의 절정이며, 사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는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 📜 절별 정리

### 📜 1. 사도들이 구약을 부르는 이름: 권위를 담은 칭호

사도들은 예수님이 쓰신 이름(율법, 선지자, 성경)을 그대로 쓴다. 때로는 그 이름을 조금 바꾸기도 한다. 바울은 “거룩한 성경”이라 부르고, 야고보는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 “최고의 법”이라 부른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직접 하신 신탁으로도 불린다. 프레임은 '거룩한'이라는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율법'을 부정적인 뜻으로 쓸 때도 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할 때다. 그러나 기록된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심판의 기준이라는 점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다.

1.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이름으로 구약을 부름
2. '거룩한 성경', '온전한 율법'은 권위의 칭호
3.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곧 신탁
4. 거룩함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움
5. 율법의 부정적 용법도 권위를 깎지 않음

> **디모데후서 3:15**
> 바울이 구약을 '거룩한 성경'이라 부름
>
>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야고보서 1:25**
> 구약을 '온전한 율법'이라 부름
>
>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 **야고보서 2:12**
> '자유의 율법'이라는 칭호
>
>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 **야고보서 2:8**
> '최고의 법'이라는 칭호
>
>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도행전 7:38**

스데반이 율법을 '살아 있는 말씀'(신탁)이라 부름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히브리서 5:12**

'하나님의 말씀'(신탁)이라는 표현의 또 다른 용례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4:11**

같은 표현 '하나님의 말씀'(신탁)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7:12**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함 (원문 '롬 7:2'는 각주로 보아 7:12의 오기)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출애굽기 3:5**

(각주) 성경은 떨기나무 앞처럼 거룩한 땅임을 보이는 비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 📜 2. "성경이 이르되"는 곧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기록된 바”라는 권위 있는 문구로 구약을 인용한다. 프레임은 여기서 워필드의 관찰을 빌려 온다. 신약에는 두 종류의 표현이 있다.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주어로 등장하는 표현이다. 갈라디아서 3:8은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한다. 다른 하나는 구약에서 사람이 한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인용하는 표현이다. 또 주어 없이 “그가 말하되”, “그것이 이르되”라고 인용해 하나님과 성경 중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분하지 않는 구절도 있다. 워필드는 반대 해석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다. 프레임은 이 결론을 받아들인다. 대표 예는 사도행전 4:25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적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

1. “기록된 바”는 권위를 담은 인용 문구
2. 성경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말하기도 함
3.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인용
4. 권위의 직접성에서 성경과 하나님은 차이 없음
5. 다윗이 말해도 화자는 성령이심

> **로마서 1:17**
> “기록된 바”로 구약을 권위 있게 인용
>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 **로마서 3:4**
> “기록된 바” 인용의 또 다른 예
>
>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9:17**

같은 유형: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원문 '롬 9:7'은 9:17의 오기로 보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19:4-5**

창세기의 서술을 '창조하신 이'가 하신 말씀으로 인용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도행전 4:24-25**

다윗의 시를 성령으로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 (대표 예)

24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사도행전 13:34-35**

구약 본문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용

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히브리서 3:7**

시편을 “성령이 이르신 바”로 인용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갈라디아서 3:16**

주어 없는 “이르시되”(레게이) 용례 (원문 '롬 3:16'은 문맥상 맞지 않아 갈 3:16의 오기로 추정, 확인 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8**

주어 없는 “이르기를”의 용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에베소서 5:14**

주어 없는 “이르시기를”의 용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5**

주어 없는 “이르시되”의 용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주어 없는 “일렀으되”의 용례

>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 📜 3. 야고보: 들을 말씀이 아니라 행할 말씀

사도들이 성경 자체를 성찰할 때 가르치는 내용도 같다. 야고보는 형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에게 기록된 말씀은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행해야 할 말씀이었다. 순종하면 큰 복이 있다. 작은 계명 하나를 가볍게 여기면 큰 위험이 따른다.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독특한 이유도 든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을 최고의 입법자로 세운다. 프레임은 이것을 자율성 주장이라 부른다. 하나님께만 있는 특권을 빼앗아 하나님을 우주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일이라는 뜻이다.

1. 말씀은 들을 뿐 아니라 행할 것
2. 작은 계명 하나를 무시해도 큰 위험
3. 형제 비방은 곧 율법 비방
4. 율법 판단은 자율성, 곧 스스로 입법자 됨
5.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

> **마태복음 7:21**
> 야고보가 따른 예수님의 가르침: 행하는 자가 들어감
>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 **마태복음 7:24-27**
>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
>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야고보서 1:22**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25**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2:10**

율법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4:11-12**

형제 판단은 율법 판단이며 입법자는 한 분뿐

[11]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프레임의 “성경은 결코 헛되이 말하지 않는다”는 야고보서 4:5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지만, 원문에 장절 표시는 없다.)

바울도 야고보와 같은 생각이다. 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고백한다. 로마서에서는 시편을 인용한 뒤, 이전에 기록된 것은 모두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설명한다. 프레임은 여기서 성경과 고전을 비교한다. 아이스킬로스나 플라톤의 작품도 후대를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그 작품들은 후대를 가르칠 목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성경은 몇 세기 뒤의 신자를 위해 의도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인간 저자의 의도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디모데후서 3:15-17이다.

1. 바울은 율법과 선지서의 기록을 다 믿음
2. 구약은 1세기 신자를 위해서도 기록됨
3. 고전은 후대를 '가르칠 수' 있을 뿐
4. 성경은 후대를 '가르치려고' 쓰임
5. 인간 저자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의도

> **사도행전 24:14**
> 기록된 율법과 선지서를 다 믿는다는 바울의 고백
>
>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 **시편 69:9**
> 바울이 로마서 15:3에서 인용한 구약 본문
>
>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 **로마서 15:4**
>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과 소망을 위함
>
>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 **고린도전서 10:6**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11**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려고 기록됨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 📜 5. 디모데후서 3:15-17: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성경을 의지하라"

바울은 인생 말년에 사역의 끝을 알고 이 편지를 쓴다. 목회서신에서 그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사역을 넘겨주고 있다. 앞으로 올 시대는 특히 어렵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그때 디모데는 무엇으로 참과 거짓을 가릴까? 바울의 첫째 답은 “나를 기억하라”다. 그러나 기억은 흐려지고, 바울을 직접 모르는 세대가 온다. 그래서 둘째 답이 필요하다. “성경을 의지하라.”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배운 그 구약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바울은 이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감동으로 된'으로 번역된 헬라어 '데오프뉴스토스'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이라는 뜻이다.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에만 나오는 말이다. 프레임은 이 번역을 변호한 워필드의 논증이 설득력 있다고 본다. 워필드의 요약은 이렇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경의 모든 높은 속성은 이 신적 기원 위에 서 있다. 프레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에게서 기원했으니, '신적 기원'만으로는 성경을 다른 것과 구별하지 못한다. 숨을 내쉰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약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 말하심이다. 7·8장에서 논증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이며 피조물과 같지 않다. 돌판, 종이, 디지털처럼 담는 매체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1. 두 사도 모두 중요을 앞두고 남긴 말

3. 둘째 답 “성경을 의지하라”는 영구한 답
4. 데오프뉴스토스는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5. 숨을 내쉼은 '창작'을 넘어 '말하심'

**디모데후서 4:6-8**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 편지를 씀

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3:1-9**

말세의 고통하는 때와 거짓 교사들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6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

**디모데후서 3: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10-14**

첫째 답: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라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후서 1:5**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신앙을 배움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3:15**

성경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것 (이 장의 핵심 구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숨을 내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를 의미한다."

### 📜 6. 영감은 '본문'의 성질이다: 성령, 바르트, 그리고 충족성

'데오프뉴스토스' 안의 '프뉴'는 숨과 영(성령)을 함께 떠올리게 한다. 프레임은 11장에서 말한 삼위일체의 '언어 모델'을 다시 꺼낸다. 성부는 말씀하시는 분,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디모데후서 3:16에서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은 기록된 말씀 자체를 꾸미는 말이다. 그런데 일부 신학자는 영감을 선지자나 저자 같은 사람의 성질로만 보는 이론을 세웠다. 프레임은 이 이론이 이 구절의 설명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칼 바르트의 주장은 더 이상하다. 바르트는 계시가 유한한 대상에 고정되거나 보존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영감이 영구한 기록된 말씀을 만들지 못하고 과거 계시의 '기억'과 미래 계시의 '기대'만 낳는다고 말한다. 프레임의 답은 이렇다. 그런 생각은 언제든 교회가 진리와 오류를 가릴 수 있는 영구한 원천을 디모데에게 주려는 바울의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덧붙인다. 성경의 '충족성'이다. 이는 성경이 신앙과 삶에 필요한 것을 모자람 없이 준다는 뜻이고, 32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아직 구약이다. 바울은 구약만으로도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사역을 준비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1. '프뉴'는 하나님의 숨이자 성령
2. 성부는 화자, 성자는 말씀, 성령은 숨
3. 영감은 사람만이 아니라 본문의 성질
4. 바르트의 '기억과 기대'는 바울의 목적에 어긋남
5. 구약만으로도 충족하다고 바울은 봄

> **마태복음 22:43**
>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한 말로 시편을 인용
>
>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 **사도행전 1:16**
>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미리 하신 말씀
>
>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 **사도행전 4:25**
> 성령으로 다윗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사도행전 28:25**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히브리서 3:7**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9:8**

성령이 성막 규례로 보이신 뜻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디모데후서 3:16**

영감은 '기록된 성경'의 성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17**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함 (충족성)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의 상황은 디모데후서와 놀랄 만큼 비슷하다. 베드로도 죽음을 앞두고 있고, 후계자들을 준비시킨다. 베드로후서 2장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 여러 부도덕을 예고한다. 베드로의 첫째 답도 “나를 기억하라”다. 그의 복음은 교묘히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 변화산에서 직접 보고 들은 증언이다. 그러나 베드로를 모르는 세대가 올 것이므로 둘째 답이 필요하다. “성경을 의지하라.” '더 확실한 예언'(베바이오테론)에는 두 해석이 있다. 하나는 기록된 예언이 베드로의 목격 경험보다 더 확실하다는 해석이다. ESV가 이렇게 옮기고, 프레임도 이쪽을 선호한다.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경험 때문에 예언이 더 확실해졌다는 해석이다. 어느 쪽이든 기록된 말씀의 확실성은 인정된다. “어두운 데”는 2장의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문화를 가리킨다. 20절의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는 허용되는 번역이지만 오해를 부른다. 이 번역 때문에 개인이 교회의 가르치는 권위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를 두고 로마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해석'이 아니라 '기원', 곧 성경 권위의 근거에 관한 말이다. 성경은 자기 경험으로 실재를 풀어내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21절도 성경이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인간 저자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이 권위의 원천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지시하신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그 말의 권위는 성령의 권위다.

1. 베드로도 죽음과 거짓 교사를 앞둔 상황
2. 첫째 답: 변화산의 목격 증언
3. 둘째 답: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4. 20절은 해석이 아니라 기원에 관한 말
5. 저자는 있었지만 권위는 성령에게서 옴

> **베드로후서 1:13-15**
> 베드로가 자기의 임박한 죽음을 예견
>
> 13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 여기노니 14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15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

**베드로후서 1:16-18**

첫째 답: 신화가 아닌 목격자의 증언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마태복음 17:1-8**

베드로가 말하는 변화산 사건

[1]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 말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6]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

**마가복음 9:2-9**

같은 변화산 사건

[2]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3]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4]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5]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7]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

**누가복음 9:28-36**

같은 변화산 사건

[28]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30]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32]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

**베드로후서 1:19**

둘째 답: 더 확실한 예언, 어두운 데의 등불

**베드로후서 1:20**

예언은 사람의 사사로운 풀이(기원)에서 나지 않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후서 1:21**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함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 8. 이 구절들은 외딴 섬이 아니다: 자유주의 반론과 결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흔히 이 두 본문이 바울과 베드로의 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교회가 초기의 생명력을 잃고 행정과 규정에 매달리던 '정적인' 시기에 익명의 교인이 썼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삶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프레임은 각주에서 '정적'과 '동적'이라는 유행어부터 꼬집는다. 정적인 것은 나쁘고 동적인 것은 좋다는 생각은 어리석다. 수술대 위의 환자가 일어나 춤을 춘다면 큰일 나지 않겠는가. 본론의 반박은 이렇다. 이 구절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하나님이 기록된 문서로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성경 전체 주제의 절정이다. 그 주제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에서 시작된다. 구속사 내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셨다. 구속사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 역사를 말한다. 시편 기자들은 그 말씀을 찬양했고, 예수님도 같은 입장이셨다. 그러니 두 사도가 생애 끝에 교회를 그 오래된 기준으로 다시 부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나 사도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는 시대에 산다. 그렇기에 더욱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인간의 자율적 사고에 기댈 때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을 읽을 때다.

1. 자유주의는 두 본문을 후대 익명의 글로 봄
2. '정적'은 나쁘다는 생각부터 어리석음
3. 기록된 문서로 다스림은 시내 산부터의 주제

**5.** 사도의 목소리 없는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 **출애굽기 24:12**
>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심: 기록된 말씀 통치의 시작
>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 **출애굽기 31:18**
>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증거판 두 개
>
>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다시 인간의 자율적 사고에 의지할 때가 아니다."**

## ⚖️ 오해와 반론

## 📖 용어

**영감**
성령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신 일. 이 장에서는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는 뜻으로 풀린다.

**데오프뉴스토스(theopneustos)**
디모데후서 3:16에만 나오는 헬라어로,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신탁, oracles of God)**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뜻으로, 사도들이 구약을 부른 칭호다.

**인격적 말씀**

하나님이 정보를 던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거시는 것. 프레임 성경론의 중심 개념이다.

**권위**
믿고 따라야 할 근거가 되는 힘. 성경의 권위는 저자가 아니라 성령에게서 온다.

**충족성**
성경이 신앙과 삶에 필요한 것을 모자람 없이 준다는 성질이다.

**자율성**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판단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태도. 프레임과 반틸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언어 모델**
성부는 말씀하시는 분, 성자는 말씀, 성령은 말씀을 실어 나르는 숨이라고 보는 프레임의 비유다(11장).

**목회서신**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말한다.

**정적/동적**
고정된 것과 움직이는 것. 신학계에서 '동적이면 좋고 정적이면 나쁘다'는 식으로 쓰이는 유행어다.

## 🔗 다른 책과 닿는 곳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구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았고, “성경이

-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디모데후서 3:16)는 성경이 하나님의 기원을 넘어 하나님의 인격적 말하심이라는 뜻이며, 영감은 기록된 본문 자체의 성질이다.
- 베드로후서 1:20-21은 해석이 아니라 기원을 말한다. 인간 저자가 있었지만 권위는 성령에게서 온다.
- 기록된 말씀으로 다스리심은 시내 산부터 이어진 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사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는 오늘 우리는 자율적 사고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8편 ·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셨나 · '성경이 이르시되'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